

흡연 남성이 지각한 건강 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

최 경 원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사회 경제적 발달과 의학수준의 발달로 우리나라 남성 평균 수명은 2020년에는 74.5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1). 이와 같은 평균 수명 연장으로 현대인들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과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 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흡연이 악성 종양,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및 뇌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건강한 삶과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 금연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20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44.1%를 나타내고 있다(Korean Association Smoking & Health, 2006).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흡연율의 심각성 때문에 2002년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흡연율을 대폭 낮추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보건소에서도 정부차원의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대중매체의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은 흡연을 불건강 행위로 인식하고 금연을 시도하지만 시도율에 비해 성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연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워 반복되는 재흡연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Chang & Park, 2001). 또한 금연 시도자들의 금연 동기가 ‘건강에 해가 될까봐’, ‘건강 때문에’라는 항목이 수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 결심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흡연자들은 금연을 반복적으로 시도 하지만 금연 유지 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보아 흡연을 해로움을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며 금연 유지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Ann, 2003 ; Lee et al., 2003, Lee, 2006).

자기효능은 이처럼 행위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긍정적인 행위를 지속시키고자 하거나 문제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의 신념 정도를 말하며 인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선행 변수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금연 프로그램에서 금연에 대해 흡연자가 갖는 자기효능감이 주요 변수로 보고되고 있으며 Lee, Park과 Seo(2003)는 흡연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이 금연 변화 단계에 영향력 있는 변수라 하였으며 Lee(1997)는 청소년 흡연과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흡연을 적게 한다고 하였으며 Shin(1997)은 자기효능감을 흡연 행위를 수정하는 강한 예측인자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흡연과 금연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흡연자들은 건강을 위해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하지만 실제로 흡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다루는 연구는 흡연 관련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간호 중재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대상도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9.0%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Shin, 2006).

이처럼 흡연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흡연을 불건강 행위로 자각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흡연남성들은 금연을 시도하지

주요어 : 흡연, 지각한 건강 상태, 자기효능감

1)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초빙교수(교신저자 E-mail: ckw1456@kic.ac.kr)

투고일: 2008년 4월 2일 심사완료일: 2008년 5월 6일

만 쉽게 금연에 이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흡연자 자신이 지각한 건강 상태에 따라 흡연 행위를 수정하는 강력한 예측인자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여 제시함으로써 금연 행위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초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이에 본 연구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특별한 상황에서 행동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흡연 행위를 불건강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자신이 지각한 건강 상태에 따른 자기 효능감을 확인함으로써 흡연 남성들의 금연 유도 프로그램과 금연 유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자신이 지각한 건강 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흡연 남성들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특성을 파악한다.
- 흡연 남성들의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 흡연 남성이 지각한 건강 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흡연 남성이 지각한 건강 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현재 흡연 중인 20세 이상 성인 남성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작성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7년 7월 9일부터 2007년 8월 16일까지 배부된 설문지 150부 중 불완전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138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서는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연구이외에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참여에 동의를 한 경우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도구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등 (1982)이 개발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 문항으로 2개 영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채점 시 역전시켜 환산한 후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두 영역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전체 효능감은 두 영역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7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Cronbach's alpha .808,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Cronbach's alpha .653으로 각각 나타났다.

결과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 특성과 자기효능감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가 지각한 건강 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29세가 53.6%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가 10.1%로 나타났으며 평균 33.84세였다. 학력은 고졸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34.1%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31.9%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직 18.8%, 사무직, 생산직이 각각 11.6%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무교가 52.9%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21.7%, 불교 13.0%, 천주교 12.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 60.1%, 기혼 35.5%로 미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은 100-200만원 37.0%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 19.6%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지각한 건강상태는 건강 42.8%, 보통 40.6%, 매우 건강 6.5%로 연구 대상자 90.4%가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하지 못함은 9.4%에 불과했다.

대상자의 흡연과 관련된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과 관련된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8)

Variable	Category	N	%	Mean ±SD
Age	20-29	74	53.6	33.84±12.60
	30-39	14	10.1	
	40-49	25	18.1	
	50>	25	18.1	
Education	Less than Junior H. S.	5	3.6	
	Senior H. S.	81	58.7	
	College	47	34.1	
	More than College	3	2.2	
Department	Profession	14	10.1	
	Office	16	11.6	
	Sales	9	6.5	
	Workers	16	11.6	
	Service	26	18.8	
	Students	44	31.9	
	Jobless	1	0.7	
	Others	12	8.7	
	Religion	Christianism	30	
Buddhism		18	13.0	
Catholicism		17	12.3	
None		73	52.9	
Marital status	Married	49	35.5	
	Unmarried	83	60.1	
	Separation/Divorce	5	3.6	
Income (million won)	<1	26	18.8	
	1-2	51	37.0	
	2-3	27	19.6	
	3-4	18	13.0	
	5>	11	8.0	
Health status	Very good	9	6.5	
	Good	59	42.8	
	Moderate	56	40.6	
	Poor	13	9.4	
	Very poor	1	0.7	

대상자의 흡연 시작 연령은 20-24세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17-19세 30.4%, 14-16세 15.9%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흡연 시작 연령은 19.16±3.15 세로 나타났다. 흡연 기간은 5년 이하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6-10년, 21-30년이 각각 22.1%로 나타났으며 평균 흡연 기간은 14.48±11.04 년으로 나타났다.

하루 흡연량은 15개비 이하 53.6%로 나타났으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욕구 조절 유무는 아니오 59.4%, 예 34.1%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욕구 조절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플 때 흡연 유무는 아니오 52.9%, 예는 41.3%로 나타났으며 흡연 하는 가족 유무는 아니오가 60.1%, 예 39.9%로 나타났으며 흡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아버지가 34.1%, 어머니도 2.2%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smoking of the subjects (N=138)

Variable	Category	N	%	Mean ±SD
Starting age of smoking	≤13	1	0.7	19.16± 3.15
	14-16	28	20.2	
	17-19	42	30.4	
	20-24	59	42.6	
	25-29	6	4.1	
Duration of smoking(year)	≤5	39	29.8	14.48±11.04
	6-10	29	22.1	
	11-15	14	11.1	
	16-20	15	10.5	
	210	29	22.1	
Amount of smoking(day)	≤15	74	53.6	
	16-25	39	28.3	
	26≥	19	13.8	
	Others	6	4.1	
Smoking in no smoking place	Yes	47	34.1	
	No	82	59.4	
	Others	9	6.5	
Smoking in sickness	Yes	57	41.3	
	No	73	52.9	
	Others	8	5.8	
Presence of smoking family	Yes	55	39.9	
	No	83	60.1	
Other's smoker	Father	47	34.01	
	Mother	3	2.2	
	Spouse	0	0.0	
	Brother/Sister	11	8.0	
	Children	1	0.7	
	Others	2	1.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39점(0.46),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3.44점(0.55)이었으며 전체 자기효능감은 3.40점(0.43)으로 각 영역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정도를 항목별로 보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다.”(3.73),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지 않다.”(3.67), “나는 일을 완성하기 전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3.65)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성공하는 편이다(2.4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그만두어야 할 때 그만 두지 못한다(3.10) 였다.

지각한 건강 상태별 자기효능감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지각한 건강 상태와 자기효능감의 차이

<Table 3> Degree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items

(N=138)

Item		Mean ± SD
General self-efficacy	1. I'm sure that I can make it, when I make a plan.	3.45±0.85
	2. I can't get off my hands, when I have to give it up.	3.10±0.93
	3. If I can't finished a my task in one time, I'm keep try it on.	3.25±0.85
	4. When I set a important plan, I can't make it usually.	2.45±0.85
	5. I give up easily before I complete my works.	3.65±0.87
	6. I'm usually escaped from the problems, when I faced it.	3.50±0.99
	7. Something looks difficult, I'll not try it	3.62±0.95
	8. I'm doing my best, if it's not suit on me.	3.26±0.99
	9. I could start the action, if I make up my mind.	3.32±0.90
	10. I abandon easily, if there no quick success.	3.49±0.84
	11. When unexpected problems broke out, I can't deal with it very well.	3.53±0.82
	12. I hesitate to do, when it looks so difficult to me.	3.38±0.97
	13. Failure gives me a chance to doing harder on it.	3.22±0.94
	14. I couldn't believe my capability, when I doing that works.	3.50±0.85
	15. I'm a man of self-confidence.	3.55±0.93
	16. I give up so easily.	3.48±0.94
	17. I'm leak of ability which managed the problems came from life times	3.73±0.94
General self-efficacy		3.39±0.46
Social self-efficacy	18. It's hard to make a new friends	3.67±1.00
	19. When I make up the relationship, I usually go before the other man.	3.20±0.99
	20. I'm give up easily, when I make a friends that he is an unattractive person.	3.57±0.90
	21. I don't give up easily, when I make a friends that he is an unfavorable impression	3.16±0.80
	22. I can't control myself in the social group.	3.63±0.85
23. I made a friend by my sociability.	3.39±0.93	
Social self-efficacy		3.44±0.55
Total self-efficacy		3.40±0.43

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지각한 건강 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전체 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perceived health status (N=138)

Perceived health status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Total self-efficacy
	Mean ± SD	Mean ± SD	Mean ± SD
Very good	3.75±.47	3.83±.42	3.77±.44
Good	3.48±.41	3.47±.50	3.48±.38
Moderate	3.31±.40	3.36±.53	3.32±.40
Poor	3.30±.57	3.40±.79	3.25±.54
F(p)	4.44(.005)	2.02(.115)	4.32(.006)

논 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과 관련된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시작 연령은 19.16세로 흡연시작 연령이 15-16세가 57.7%인 Lee(1997)의 연구결과보다 높았으나 흡연 시작 연령이 20세 미만인 42.8%로 나타난 Lee(2006)의

연구와 흡연 시작 연령이 십대 후반이 65.3%로 나타난 Lee 등(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흡연 시작 연령이 24세 미만인 경우가 95.4%인 것은 흡연자 대다수가 중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에 흡연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흡연 예방 교육에 있어 모든 흡연자들에게 일률적인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성장 발달 특성과 관련된 흡연 시작 동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흡연 기간이 14.48년이었으며 흡연 기간은 5년 이하가 29.8%로 가장 많았고 흡연자들의 약 48%가 10년 이상 흡연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장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한 Kim(2005)의 연구에서 흡연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68.8%로 나타난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좀처럼 담배를 끊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금연 열풍과 국가적인 금연 사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금연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금연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응답한 An(2003)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 흡연자 스스로 금연 결심을 유도하고 흡연 유혹을

<Table 5> Difference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perceived health status (N=138)

Self-efficacy	Perceived health status	Mean ±SD	F	P
2. I can't get off my hands, when I have to give it up.	Very good	3.44± .73	3.66	.014
	Good	3.29± .91		
	Moderate	2.81± .86		
	Poor	3.38± .96		
9. I could start the action, if I make up my mind.	Very good	4.00± .23	2.77	.044
	Good	3.62± .74		
	Moderate	3.30± .90		
	Poor	3.31± .95		
13. Failure gives me a chance to doing harder on it.	Very good	3.89± .78	2.99	.033
	Good	3.32± .88		
	Moderate	3.15± .91		
	Poor	2.77±1.17		
14. I couldn't believe my capability, when I doing that works.	Very good	3.89±1.05	3.84	.011
	Good	3.61± .81		
	Moderate	3.53± .77		
	Poor	2.85± .80		
15. I'm a man of self-confidence.	Very good	4.22± .83	4.79	.003
	Good	3.75± .78		
	Moderate	3.35± .99		
	Poor	3.08±1.04		
19. When I make up the relationship, I usually go before the other man.	Very good	3.67±1.00	2.72	.047
	Good	3.41± .91		
	Moderate	2.97± .98		
	Poor	3.08±1.18		

조절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금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의 50% 이상이 20대 성인 남성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Kim(2005)의 연구 결과에서 흡연기간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보여 진다. 대상자가 지각한 건강 상태는 건강 42.8%, 보통 39.9%, 매우 건강 6.5%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자의 90.4%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대상자들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으면서도 흡연으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 상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금연 결심과 금연 유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여 진다.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90.4%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는 본 연구 결과와 흡연자가 자신의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9.0%인 Lee 등(2003)의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흡연자와 금연 성공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건강상태, 흡연자들이 지각하는 건강상태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이들 결과를 기초로 흡연자, 비흡연자, 금연 성공자의 객관적 건강 상태와 이들 세 그룹이 지각한 건강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금연 동기 부여 또는 성공적인 금연 유지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매우 실증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3.40점이었으며 영역별로 보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3.39점,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3.44점으로 5점 만점으로 비교하면 각 영역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인간 행동 변화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할때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Bandura, 1986)으로 Lee(1997)는 청소년의 흡연과 자기효능감 관계에서 역상관 관계를 나타내 흡연을 많이 할수록 낮았다고 하였으며 Myung(2005)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흡연 위험 지각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Shin(1997)도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서 흡연을 감소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자기효능감과 흡연율은 역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이 흡연을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밝힌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전체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대상자들의 흡연을 감소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앞으로 자기효능감과 흡연감소율, 금연시도율과 금연유지율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기효능감 정도를 항목별로 보면 “중요한 목표를 세웠을 때 성공하는 편이다.”항목이 2.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났으며 다음은 “그만두어야 할 때 그만 두지 못한다.” 항목이 3.1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자기효능감이 흡연 유지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한 Lee 등(2003)의 연구들에 비추어 본 연구 대상자들이 나타낸 낮은 자기효능감 항목들은 흡연자들이 금연 목표를 세웠을 때 성공하기 어려우며 흡연을 그만두어야 할 때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들을 지지할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흡연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금연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점수가 낮은 항목이 표현하는 흡연 및 금연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각한 건강 상태별 자기효능감의 차이

본 연구에서 지각한 건강 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전체 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90.4%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증진 행위를 잘할 것이다”가 유의한 수준으로 지지된 Kim, Chung 과 Kim(2000)의 연구와 Condiotte 등(1981)의 금연 프로그램 제공 후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자기효능과 건강행위의 지속 성과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건강 증진 행위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신념 정도가 높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각한 건강상태가 높은 군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흡연자가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의학적 자료를 제시한 객관적 건강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즉 지각한 건강상태와 객관적 건강상태가 일치하는지 만일 일치한다면 지각된 건강 상태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각한 건강 상태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나는 결심을 하면 곧 착수한다.”, “실패는 나를 더욱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된다.”, “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상자들이 실행력, 노력성,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특성들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고 유지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는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주로 먼저 다가간다.”라는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자가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효능 정도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에서 술, 담배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 Kim 등(2000)의 청소년의 건강증진 행위와 자기효능과의 관계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흡연을 대인관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흡연자들의 일반적인 흡연태도와 사회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건강 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흡연 남성들의 금연유도 프로그램과 금연유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현재 흡연 중인 20세 이상 성인 남성 13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자가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 특성과 자기효능감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가 지각한 건강 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건강상태는 비교적 좋은 상태였으며, 흡연시작 연령은 20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 평균 흡연 기간은 평균 흡연 기간은 14.48년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3.39점,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3.44점, 전체 자기효능감은 3.40점으로 각 영역에서 모두 높았고, 지각된 건강 상태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전체 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흡연자들은 평균 14.48년 흡연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90.4%가 자신의 건강을 보통 이상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객관적 건강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흡연 위험에 대한 지각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강조한 금연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연 결심을 한 흡연자에게 금연 유지를 위한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nn, S. J. (2003). *The study of smoking attitude, behavior and smoking of adult m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thought and action: a*

-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hang, S. O., & Park, C. S. (2001). Analysis of smoking temptation, nicotine depending, perceived health status corresponding to stage of change in smoking cessation in middle aged man. *J Fund Nurse*, 8(1), 69-80
- Conditte, M. M., & Lichtenstein, E. (1981). Self-Efficacy and relapse in smoking cessation programs. *J Consult Clin Psychol*, 49(5), 648-658
- Korean Association Smoking & Health (KASH) (2006). Smoking & Health, Korea Association Smoking & Health. http://www.kash.or.kr/user_new/pds_view.asp
- Kim, E. A., Chung, Y. K., & Kim, K. S. (2000). A study on the relations of health promoting daily life style and Self-efficacy in Boy's High. *J Korean Soc School Health*, 13(2), 241-259
- Kim, M. S. (2005). A study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smoking knowledge, smoking attitude, and smoking cessation intention in male Smoker. *J Korean Acad Nurs*, 35(2), 344-352.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1). Projection of Future Population.
- Lee, J. W. (1997). *A correlational study of adolescent smoking, environmental factors, stress and self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K. S., Lee, J. W., Lee, W. C., Meng, K. H., Yang, S. I., Kim, B. S., Lee, S. Y., & Lee. K. H. (2003). The factors associated with relapse of smoking in male workers of an electronics industries. *J Korean Occup Health*, 42(2), 39-48.
- Lee, S. H., & Suh, K. H. (2006). Moderate effects gender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moking and self-concept among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 23(2), 29-45.
- Lee, S. O. (2006). *A study on the non smoking knowledge and the attitude of smok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 Lee, Y. M., Park, N. H., & Seo, J. M. (2003) Process of change, self efficacy and decisional balance corresponding to stage of change in smoking cessation in industrial workers. *J Korean Acad Adult Nurs*, 13(4), 483-492
- Myung, H. H.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health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and the degree of perceived risk of smoking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 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 Sherer, M., Moddox, J., Mercandante, B., & Rogers, R.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 Rep*, 51, 663-658
- Shin, S. R. (1997).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ory efficacy promoting program and it's effect on adolescent smok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hin, S. R. (2006). Analysis of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related nursing research in Korea and its future direction. *J Korean Acad Adult Nurs*, 36(2), 415-425.

Difference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Perceived Health Status in Male Smokers

Choi, Kyung Won¹⁾

1) Inv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Purpose: The study were to identify difference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perceived health status in male smokers. **Methods:** The subjects were 138 male smoker in Seoul and Incheon.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ninth of July to 16th of August in 2007.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OVA with SPSS 14.0. **Result:** Participants showed that a high level of total self-efficacy score $3.40 \pm .43$, general self-efficacy score $3.39 \pm .46$, social self-efficacy score $3.44 \pm .5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total self-efficacy and general self-efficacy in accordance with perceived health statu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social self-efficacy in accordance with perceived health status. With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subjects smoked 14.48 ± 11.04 years and 90.4% of the subjects were highly perceived that the health status of oneself above of moderate state and self-efficacy score. **Conclusion:** Therefore raising a perception about smoking dangerous, the prohibition of smoking program development which emphasizes the noxiousness of smoking for must precede, recognizes the necessity of prohibition of smoking and prohibition of smoking decision in one smoker comes to seem with the fact that own effect increase program for a prohibition of smoking maintenance.

Key words : Smoking, Self-efficacy, Perceived health statu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i, Kyung Won
Departmen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101 Gyesan-gil Gyeyang Gu, Incheon
Tel: 82-32-540-0190 Fax: 82-32-555-2614 E-mail: ckw1456@kic.ac.kr